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는 “푸르덴셜홀의 온화한 음향은 마치 거대한 현악기 안에서 연주하는 느낌을 준다”고 극찬했다. /뉴저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폭력과 가난으로 죽어가던 뉴욕의 도심에 예술로 되살려낸 뉴저지 아트센터 전경. 매년 뉴저지 아트센터의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사운드 오브 시티’(Sounds of the City)는 시민들의 여름 밤을 문화로 물들인다. <뉴저지 아트센터 제공>

아트센터, 도시의 브랜드가 되다
소문난 공연장을 찾아서 -미국편
(15) 뉴저지 아트센터

폭동으로 쇠락한 도심 예술로 살려내다

뉴저지=박진현 문화선임기자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뉴약(Newark City)은 손꼽히는 ‘위험한’ 도시였다. 한 때 인구가 55만 명에 달하고 소비규모가 미국 5위에 오를 만큼 잘나간 적도 있었지만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뉴저지 제1도시인 뉴약이 ‘블랙시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는 1967년 발생한 흑인폭동(Newark Riot) 때문이다.

1967년 7월12일 뉴약 시내의 한 도로에서 흑인 택시기사 존 스미스는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해 놓은 경찰차를 피해 나가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스미스가 수갑을 채우려는 2명의 백인 경찰에게 거세게 반항하다가 심한 구타를 당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숨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성난 흑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인종차별과 실업, 가난으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터였다.

흑인 젊은이들은 백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를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6일간 계속된 소요로 26명이 사망하고 72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500명이 체포됐다. 흑인들의 습격에 겁먹은 백인들과 흑인 중산층들은 하나 둘씩 뉴저지 교외로 집을 옮겼다. 도심의 불을 환하게 밝혀주던 대형상

가와 오피스 빌딩의 불빛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불 꺼진 뉴약의 도심은 우범지대의 야지로 변했다.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뉴약을 끌어올린 것은 ‘예술’이었다. 1986년 7월 1일 뉴약시의 두 번째 흑인 시장 샤프 제임스(Sharpe James·74)는 아트센터를 짓지 않으면 도심을 되살릴 수 없다고 믿고 폭동의 진원지였던 밀리터리 공원 부근을 건립부지로 짚었다.

그가 아트센터를 ‘뉴약의 구원투수’로 내세운 것은 유사한 아픔을 먼저 겪은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덕분이다. 철강도시에서 공해도시로 전락한 피츠버그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가장 먼저 파산을 선언한 클리블랜드가 문화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한 데에는 베네딕트 예술센터(The Benedum center), 클리블랜드 플레이하우스와 같은 걸출한 아트센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시장은 1986년 12월 가칭 ‘뉴저지 아트센터’(New Jersey Arts Performing Center·NJPAC)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건립예산(1억8천700만 달러) 마련을 위해 워싱턴으로 달려가 연방정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한편 뉴약 연고기업인 보험회사 프루덴셜의 CEO를 만나 기부를 독려했다. 또한 뉴타운 개발의 귀재로 불리는 로렌스 골드만은 NJPAC회장으로 영입, 기금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였다. “아트센터보다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더 급하지 않

폭동 진원지에 1986년 아트센터 건립 결정 97년 개관후 삭막했던 도시 180도 달라져 명품공연·예술교육으로 시민들 활기 가득

나”는 연방정부의 관리들에게 “대공황 때도 브로드웨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벽돌과 시멘트로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실의에 빠져 신음하는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고 역설한 제임스 시장의 일화는 유명하다.

‘환상의 롬비’가 벌인 펀드 레이징 덕분에 NJPAC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탔다. 1989년 9월 미 하원 예산심의위원회는 NJPAC의 설계비용으로 12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듬해 3월에는 프루덴셜에서 3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때문에 NJPAC의 대극장은 ‘프루덴셜 홀’로 명명됐다.

골드만 회장은 LA출신의 전문건축가 바트 메이어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메이어스는 NJPAC 건물이 주변 공장지대나 오래된 철교 등과 잘 어울리면서 관객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붉은 벽돌로 마감했다. 지난 1997년 10월 문을 연 NJPAC는 대극장인 프루

덴셜홀(2750석), 현대무용과 발레전용홀인 빅토리아홀(514석), 예술교육센터, 카바레 시어터, 리허설 룸, 후원자 라운지(Parsonnet Room), 레스토랑, 야외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프루덴셜 홀은 말발굽 모양의 내부구조와 화려한 조명, 전통적인 빨간색에서부터 황금색까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4층의 객석과 무대가 서로 감싸안은 듯한 형상을 보고 첼리스트 요요마는 “명료하고 온화한 음향이 마치 거대한 현악기 안에서 연주하는 기분이 들게 한다”고 극찬했다.

NJPAC는 개관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고급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섰고 밤늦도록 문을 여는 레스토랑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NJPAC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고 인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제임스 시장이 예견

했던 ‘예술의 힘’, 바로 ‘NJPAC 효과’다.

NJPAC는 미국의 공연예술센터 가운데 예산 규모로는 ‘톱 6’에 속한다. 전체 예산 중 공연기획(40%)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술교육(13%) 프로그램이다. NJPAC 예술교육은 아트센터로는 미국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크다.

뉴저지 아트센터의 홍보매니저 조슈아 발버(Joshua Balber)는 “각급 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보여준 다음 직접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뉴저지 아트 아카데미’를 꼽을 수 있다”면서 “댄스, 연극, 음악, 문학 등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성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여름(6~8월) 뉴저지 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사운드 오브 시티’(Sounds of the City)는 시민들의 사교문화를 업그레이드한 간판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막이 오르는 ‘사운드 오브 시티’는 2~3천 명이 참가해 밤늦게까지 예술의 정취에 흠뻑 빠진다. 40년 전 폭동으로 한동안 ‘빼앗긴’ 밤 문화를 되찾아온다. 만회하려는 듯 해가 갈수록 열기가 뜨겁다. /jhpark@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했습니다.

함께 걷자, 가을속으로!

2011년 담양수목길 걷기대회

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수목길 걷기대회 코스로 담양군이 마련한 ‘담양 오방길’을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가로수길이 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천과 관방제림을 함께 걸으며 건강과 추억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10월 22일(토) 낮 1시
| 장소 | 담양읍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 코스 | 담양 오방길 1코스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 관방제림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 금월교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총 5km 구간

| 부대행사 |
 ■ 죽순요리 시식회 ■ 오방차 체험 ■ 오방비누 체험
 ■ 오방한과 체험 ■ 오방염 체험 ■ 오방주먹밥 체험 ■ 오방천연염색 체험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담양군 | 주 관 | 광주일보사
| 협 조 | 담양 오방길사랑회 | 문 의 | 062-220-0541

참가자(선착순 1,000명)에게 간식과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참가자 중 100여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경품을 지급합니다.